

# ‘관광 1번지 전남’ 시·군 무관심에 놓친 공모사업 수두룩

### 스마트 창업단지 조성 등 21건 유치...국비 1조 1594억원 확보 웰니스 관광도시·관광교통 개선 등 관광·복지 상당수는 공모 불참

전남도가 지난 한 해 타 지역과의 공모 경쟁을 통해 유치한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이 1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시·군의 무관심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 공모 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민주·북포5) 의원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간 유치에 성공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125건으로, 해당 사업 유치로 확보한 국비만 1조 159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국이 '2025년 대규모 스마트 창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4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한 것을 비롯, 2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장 많은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2024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국비 78억) ▲2024년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사업(140억)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120억)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1310억) 등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지역혁신 공모사업(126억)과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284억), 펩타이드 첨단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260억) 등 19건은 전략산업군 업무와 관련된 공모 사업이었다.

지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67억 6000만원) ▲청년문화센터(260억) ▲노후산단 재생사업(246억)

등 13건의 공모사업도 유치했다.

해양수산국 분야 사업들로는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677억)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212억 5000만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50억) 등 11건이었다.

인재육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1025억)과 2024년 글로벌대 30 지정(615억 8000만원) 등 5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한 게 성과로 꼽혔다.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40억) 공모에도 선정됐다.

반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면 유치에 가져야 할 공모사업에도, 시·군 등의 무관심으로 응모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문체부가 추진한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5억)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3억) ▲지역 관광교통 개선 공모사업(3억 5000만원) 등은 응모하려는 시·군이 없어 공모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의 '신취약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24억), 국토부의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3억 5000만원), 농림부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100억),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45억),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91억) 등도 관심을 갖는 시·군이 없어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경선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독특한 지역만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이 행복한 북구 만들어요”

12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위한 '여성행복원 네트워크 정책포럼'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유관기관 대표 등 여성 참여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 고광완 행정부시장, 시의회 행감 책임 통감...“자료 제출 최선 다할 것”

### 예산안 심의 앞두고 관계 봉합나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최근 자료 부실 제출 파행을 빚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해 사과했다.

고 부시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계 오류나 기타 다소 부실한 자료가 있었다”며 “부실 자료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 교통국에 대한 행감을 중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의 부실·허위 보

고 자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고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료 부실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 부시장은 사과하지 않았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 부시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른 것은 부실한 행감자료 제출 등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자위 소속 이귀순(민주·광산구4) 의원은 “행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며 그 모든 책임은 행정부시장이 지게 돼 있다”며 “단순한 오차·오기는 이해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과 고의 누락을 지적하는 것이다. 진정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하루 전만 해도 시의회와 격한 갈

등을 빚었던 고 부시장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행감에 이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와 불편한 관계를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평한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시장이) 출장 일정에도 의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 산하기관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산하기관장이 아닌 부시장을 출석시킨 것에 대해 과도한 행감 활동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체험 도시민에 인기

### 기관·단체 직원 등 대상 운영 도시민 유치·지역 활력 기대

전남도가 올해부터 도시민에게 전남 농산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프로그램은 전남의 귀농어촌 지원정책 안내와 함께 체험형 지원센터 견학, 전남 주요 관광지 탐방, 남도 음식 만들기 등 전남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전남도 귀농어촌인 어울림대회’에서 진행된 전남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남귀농어촌인연합회 간 도시민 유치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1기’를 진행한 데 이어, 11

월과 12월에도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했다.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체험 교육은 전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에서 대도시 기관·단체 직원, 회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달 2기 참여 대상자를 선발·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대도시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전남 맛보기 행사를 공동 추진하고, 귀농어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전남의 농산어촌을 체험할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박희경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앞으로 전남 농산어촌의 매력을 경험하도록 ‘전남 맛보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도시민 유치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진행된 1기 프로그램은 전남의 귀농어촌 지원정책 안내, 함평군 체류형 지원센터 견학 및 국향대전 관람, 고추장 만들기 현장체험, 신안 파프리카 탐방 등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집중 관리

### 김장용 채소류, 스티커 부착한 종량제 봉투에 배출

광주시는 12일 “김장철을 맞아 김장 관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관리 기간(16일~12월20일)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평상시보다 20% 증량해 1일 최대 540t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입 시간도 2시간 연장해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만 한시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30ℓ 이하 종량제 봉투 배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배부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수거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해 홍보한다.

배추·무와 텃밭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잘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부피가 큰 배추 줄기와 채소는 흙과 이물질 제거 후 스티커를 부착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필요한 재료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재료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채소를 국거리로 활용하는 등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

### 전남여성정책포럼 의제발굴 발표회

전남여성정책포럼이 아이 낳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위해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기저귀 값 확대 지원, 출생·양육 지원, 0세부터 19세까지 직불금으로 지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반찬 제공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1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2024년 전남여성정책포럼 의제발굴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은숙 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100여 명이 모여 지역 여성과 도정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